

대구지역 운수종사자의 영업지역별 식행동 특성 및 음식 기호도 조사 연구

김 정 숙

계명문화대학 식품과학과

A Study on Eating Behaviors and Food Preferences of the Workers at Transportation Business in Daegu Areas by Work Site

Jeong-Sook Kim

Department of Food Science, Keimyung College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ating behaviors and food preferences of the workers at transportation business in Daegu areas by work site. The survey was performed by questionnaires from July 13 to August 25, 1999 against 353 of males. As a general factor, the subjects of survey were male drivers in their forties to fifties. Their education level was middle school (46.5%) and high school(47.3%) diploma.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44.2% of city workers and 55.8% of suburban workers. This study showed that the city workers eat three meals per day with high percentage (92.9%) and a large number of suburban workers (21.3%) eat two meals only. Most of the subjects 78.2% responded that their diet life were irregular due to the property of their job. The food preferences of most of workers (94.9%) were Korean food rather than any other foods. Frequency of eating-out was much higher in city drivers than in suburban drivers. They considered taste of food firstly and the prices of food secondly, but the nutritional value of food was considered with a very low percentage (14.7%). Their favorite menu turned out to be the Korean style one-dish food, of those one-dish Korean food, they preferred rice or soup to the noodl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nutritional education against the workers at transportation business is needed to set the proper menu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ference each group of workers.

Key words: eating behavior, food preference, transportation business.

I. 서 론

사회경제적인 발달에 따라 소득의 증대, 주거양식의 변화, 음식의 개방화와 국제화, 식생활 수준의 향

상으로 인해 식습관은 변화되고 영양과 건강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심은 개인의 영양상태는 물론 국민 전체의 체력과 관계되어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며 생산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1,2)}.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 각 직종 종사자들의 존중 및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손실 없는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의 산업구조에서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으로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운수종사자들의 건강관리와 식생활관리의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들 근로자들의 식행동은 직업, 사회, 문화, 경제 수준, 연령, 관습 등의 복합적인 인자들에 의해 형성되고 식습관은 기호나 관습에 따라 형성되며 고정화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³⁾.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상 영양의 불균형, 불규칙한 식생활, 무절제한 식이요법, 편의주의적 식행태, 짧은 식사시간, 음주, 흡연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⁴⁾. 특히 운수종사자들에게 있어서 조기 출근, 야간 운전, 늦은 퇴근으로 인한 식사상태의 불규칙성, 잦은 시외운행에 기인하는 외식, 고속도로나 국도변의 제한된 외식장소의 선택, 졸음과 피로를 물리치기 위한 기호음료의 지나친 복용, 과다 흡연 등은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식사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성 결식, 비만, 소화불량, 각종 성인병 등은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⁵⁾. 음식기호도에 따른 식품선택은 심리적인 적응여부, 문화, 경제적 배경, 개개인의 식품에 대한 경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의 식품기호성은 식사에서 섭취하는 영양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⁶⁾. 실제로 근로자들의 식생활 양식과 음식기호도는 식생활의 편이성 추구,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좌우되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불규칙한 근로조건과 식생활 양식의 다변화로 인하여 운수종사자들은 여러 종류의 만성질환과 소화기계 질환 등의 이환율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운수업체 근로자들의 식생활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

운수업체 근로자들의 식행동 특성 및 음식 기호도를 주로 영업하는 지역에 따라 대구 시내 및 대구 시외 영업자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운수종사자들의 식생활 실태와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영양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 운수종사자 급식업소의 식단작성 시 참고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대구 운수연수원에 교육차 내원한 운수종사자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간은 1999년 7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하였으며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375부(회수율 93.75%)였으며 이 중에서 불완전하게 응답한 22부를 제외한 353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설문지의 문항은 선행 연구들을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으로는 성별, 연령, 영업지역, 학력, 평균 월수입 정도를 조사하였다.

2) 식행동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식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기 건강 인식도, 식사량, 음식을 섭취할 때의 고려사항, 결식 유무 및 그 이유, 식사의 규칙성, 기호식품류의 섭취 정도 및 영양제의 복용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3) 음식기호도

조사대상자의 음식기호도로는 그들이 선호하는 식사 형태와 기피식품의 유무, 외식 실태 및 외식시 메뉴 선택의 기준, 선호하는 음식 종류를 조사하였다.

3. 조사자료의 분석

모든 조사자료는 SPSS/PC package⁷⁾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과 식행동 및 기호도의 백분율과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식행동과 기호도 변수간의 유의성 검정은 χ^2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항들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353명(100%)으로 모두 남성근로자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137명(38.8%), 50대가 129명(36.5%)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영업지역별로는 시내영업자가 156명(44.2%), 시외영업자가 197명(55.8%)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 학력자가 47.3%였고 다음이 중졸 학력자로서 46.5%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수입은 51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49.0%로서 가장 많았다.

2. 조사대상자의 식행동 특성

1) 건강 인식도 및 식욕정도

조사대상자들의 자기건강에 대한 인식도를 Table 2에서 조사한 결과 건강하다고 응답한 편이 시내영업자들 보다 시외영업자들의 경우 36.0%로서 더 높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Variables	Subjects
Sex	Male	353(100.0)
	Female	0(0.0)
Age(yrs.)	30~39	49(13.9)
	40~49	137(38.8)
	50~59	129(36.5)
	60 over	38(10.8)
Work site	City worker	156(44.2)
	Suburban worker	197(55.8)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64(46.5)
	High school	167(47.3)
	College	13(3.7)
	University	9(2.5)
Monthly family income (10 thousand won)	≤ 50	78(22.1)
	51~100	173(49.0)
	101~200	79(22.4)
	200 ≤	23(6.5)

게 조사되어 건강에 더 자신이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은 65.4%, 56.9%로서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섭취하는 음식량은 대부분의 경우 적정량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균량과 그보다 많은 양을 먹는다는 경우가 시외영업자들의 경우 68.0%, 24.4%로 시내영업자들의 62.2%, 19.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P <$

Table 2. Consciousness of health and Amount of meal

N(%)

Variables	City worker 156	Suburban worker 197	Total 353	Significance
Consciousness of health				
Very healthy	3(1.9)	3(1.5)	6(1.7)	NS
Healthy	34(21.8)	68(34.5)	102(28.9)	
Average	102(65.4)	112(56.9)	214(60.6)	
Weak	17(10.9)	14(7.1)	31(8.8)	
Amount of meal				
Poor	24(15.4)	15(7.6)	39(11.1)	0.05*
Average	97(62.2)	134(68.0)	231(65.4)	
Much	31(19.9)	48(24.4)	79(22.4)	
Too much	4(2.5)	0(0.0)	4(1.1)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value by χ^2 -test

0.05). 이상의 결과에서 식사와 식사간의 시간간격이 불규칙한 것을 예상하고 이것이 음식섭취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

2) 식사에 대한 가치관 및 음식 선택시 고려사항

식사에 대한 가치관 및 음식 선택시 고려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식사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혹은 일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34.8%, 27.2%로 나타나서 영양섭취를 위해 먹는다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좋아 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시외영업자보다 시내영업자의 경우에서 다소 더 높았으며, 음식 선택시의 고려사항으로는 다수의 운수종사자들이 영양 균형적인 면보다는 맛 위주로 음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시외영업자의 경우가 더 높아서 올바른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 등⁸⁾의 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및 조⁹⁾의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식 선택기준으로 맛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과 일치하였다. 위생적인 면이나 음식의 모양을 고려한다는 경우도 전체에서 6.0%, 6.5%로 나타났으나 시외영업자의 경우 음식량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3) 식사횟수와 식사시간의 규칙성

Table 4에서 하루간의 식사횟수를 보면 한끼를 결식하고 두끼만 먹는 경우는 시외영업자의 경우가 시내영업자의 경우보다 3배 높게 나타나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001$). 세끼를 다 먹는 경우는 시내영업자가 92.9%로서 시외영업자의 78.7%보다 높았다. 식사를 거르는 이유로는 식욕이 없는 경우가 35.4%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없어 식사를 못하는 경우는 시외영업자의 경우가 46.7%로서 시내영업자보다 더 높았다. 이는 시외영업자들의 근무여건이 조기출근과 불규칙한 퇴근 등으로 시내영업자들보다 더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울산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 등¹⁰⁾의 연구에서도 바빠서라는 이유와 식욕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식사시간의 규칙성은 불규칙한 경우가 78.2%로 규칙적인 경우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운수종사자들의 특수한 근무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식사시간의 규칙성과 건강과의 상관에 관한 영양교육이 주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4) 흡연, 커피, 카페인음료 섭취상태

흡연과 커피 및 카페인음료 섭취상태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모든 항목에서 시내, 시외근로자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전체에서 흡연자가 61.2%

Table 3. View of value for diet and Consideration of food choice

N(%)

Variables	City worker 156	Suburban worker 197	Total 353	Significance
View of value for diet				
Fulfilling hungry	54(34.6)	69(35.0)	123(34.8)	NS
Working	41(26.3)	55(28.0)	96(27.2)	
Intaking nutrients	9(5.8)	17(8.6)	26(7.4)	
Eating favorite foods	52(33.3)	56(28.4)	108(30.6)	
Consideration of food choice				
Taste	74(47.4)	118(59.9)	192(54.4)	NS
Nutrition	53(34.0)	60(30.5)	113(32.0)	
Quantity	4(2.6)	0(0.0)	4(1.1)	
Sanitation	12(7.7)	9(4.5)	21(6.0)	
Form	13(8.3)	10(5.1)	23(6.5)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4. Frequency of eating, reason to skipping meal and regularity of meal times N(%)

Variables	City worker 156	Suburban worker 197	Total 353	Significance
Frequency of eating (per day)				
Once	0(0.0)	0(0.0)	0(0.0)	0.001*
Twice	11(7.1)	42(21.3)	53(15.0)	
Three times	145(92.9)	155(78.7)	300(85.0)	
Reason to skipping meal				
No appetite	55(35.3)	70(35.5)	125(35.4)	NS
Indigestion	19(12.2)	15(7.6)	34(9.6)	
Don't like sidedish	11(7.1)	14(7.1)	25(7.1)	
No time	63(40.4)	92(46.7)	155(43.9)	
To save money	8(5.0)	6(3.1)	14(4.0)	
Regularity of meal times				
Regular	36(23.1)	41(20.8)	77(21.8)	NS
Irregular	120(76.9)	156(79.2)	276(78.2)	

NS: Not significatly different

*P-value by χ^2 -test**Table 5.** Smoking and drinking a coffee, soft drinks N(%)

Variables	City worker 156	Suburban worker 197	Total 353	Significance
Smoking (cigarettes/per day)				
No	65(41.7)	72(36.5)	137(38.8)	NS
≤ 10	40(25.6)	53(26.9)	93(26.3)	
11~20	47(30.1)	64(32.5)	111(31.5)	
20 <	4(2.6)	8(4.1)	12(3.4)	
Coffee (cup/per day)				
No	40(25.6)	42(21.3)	82(23.2)	NS
1	67(42.9)	91(46.2)	158(44.8)	
2~3	37(23.8)	49(24.9)	86(24.4)	
4~5	12(7.7)	15(7.6)	27(7.6)	
Soft drinks (bottle/per day)				
No	69(44.2)	93(47.2)	162(45.9)	NS
1	68(43.6)	86(43.7)	154(43.6)	
2	11(7.1)	15(7.6)	26(7.4)	
3	8(5.1)	3(1.5)	11(3.1)	

NS: Not significatly different

로서 비흡연자의 38.8%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정도의 흡연자가 가장 많았다. 커피도 하루 한 잔 마시는 경우가 44.8%로 가장 높았으나 두세잔을 마시는 경우도 24.4%나 되었다. 카페인을 함유한 드링크류도 하루 한 병을 마시는 경

우가 43.6%였으며 두 병을 마시는 경우도 7.4%로 나타났고 시내영업자의 경우 일일 세병을 마시는 경우도 5.1%로 나타나서 흡연 및 카페인 함유음료의 위해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Intake of nutritional supplement and restorative medicine

N(%)

Variables	City worker 156	Suburban worker 197	Total 353	Significance
Intake of nutritional supplement				
Yes	35(22.4)	31(15.7)	66(18.7)	NS
No	121(77.6)	166(84.3)	287(81.3)	
Intake of restorative medicine				
Yes	24(15.4)	25(12.7)	49(13.9)	NS
No	132(84.6)	172(87.3)	304(86.1)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5) 영양제 및 보약 복용 유무

운수종사자들의 영양제 복용 유무 및 보약 복용 실태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영양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18.7%였으며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보약의 복용 유무에서도 복용하는 경우의 13.9%보다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86.1%로 현저히 높았다. 그러나 영양제 복용 비율이나 한약 복용 비율 모두 다 시내영업자에게서 시외영업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 이유는 시내영업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더 있기 때문일 것이다.

3. 음식 기호도

1) 선호하는 식사 형태

선호하는 식사형태는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90% 이상이 모두 한식을 선호하였으며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서구화되어도 식생활은 아직도 우리의 전통양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안 등¹¹⁾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시외영

업자들 중에 중식을 선호하는 비율은 시내영업자들 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 기피 음식 유무 및 기피 이유

기피음식의 유무와 그 이유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기피하는 음식 유무의 응답은 시내영업자의 경우 존재한다고 53.8%였으며 시외영업자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3%로 더 높았다. 기피 이유로는 시내영업자의 경우 습관적인 이유가 36.9%로 가장 높았으며 소화불량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조⁹⁾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시외영업자의 경우 특유한 맛과 냄새 때문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장시간 운전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였다($p < 0.001$).

3) 매식 빈도와 매식 선택시 고려사항

Table 9에서 매식 빈도를 조사한 결과 시내영업자는 하루에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3%였고 시외영업자는 하루 한 번이 61.9%로서 차이가 있었다($p < 0.001$). 하루 두 번 매식의 경우도 26.9%로서

Table 7. The types of favorite food

N(%)

Variables	City worker 156	Suburban worker 197	Total 353	Significance
Types of favorite food				
Korean food	152(97.5)	183(92.9)	335(94.9)	NS
Western food	2(1.3)	2(1.0)	4(1.1)	
Japanese food	1(0.6)	4(2.0)	5(1.4)	
Chinese food	1(0.6)	8(4.1)	9(2.5)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8. Evading food and Evading reason

N(%)

Variables	City worker 156	Suburban worker 197	Total 353	Significance
Evading food				
Exist	84(53.8)	88(44.7)	172(48.7)	NS
Don't exist	72(46.2)	109(55.3)	181(51.3)	
Evading reason				
Habitual	31(36.9)	16(18.2)	47(27.3)	0.001*
Indigestion	23(27.4)	13(14.8)	36(20.9)	
Special smell or taste	16(19.1)	46(52.2)	62(36.1)	
Religious problem	14(16.6)	13(14.8)	27(15.7)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value by χ^2 -test**Table 9.** Frequency of eating-out and Consideration of food choice for eating-out

N(%)

Variables	City worker 156	Suburban worker 197	Total 353	Significance
Frequency of eating-out (per day)				
None	105(67.3)	22(11.2)	127(36.0)	0.001*
Once	41(26.3)	122(61.9)	163(46.2)	
Twice	10(6.4)	53(26.9)	63(17.8)	
Consideration of food choice for eating-out				
Taste	63(40.4)	91(46.2)	154(43.8)	NS
Price	45(28.8)	38(19.3)	83(23.5)	
Nutrition	23(14.8)	29(14.7)	52(14.7)	
Rapidity	18(11.5)	20(10.1)	38(10.7)	
Sanitation	5(3.2)	12(6.1)	17(4.8)	
Quantity	2(1.3)	7(3.6)	9(2.5)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value by χ^2 -test

하루 한번 이상 매식을 하는 경우가 88.8%로 나타났으므로 하루 종일 집을 떠나 운전하는 시외영업자들에게 매식은 필수적인 경우이기에 매식의 영양과 질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식시 선택 이유는 맛 위주로 선택한다는 응답이 43.8%였으며 다음이 가격(23.5%), 영양(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 등¹²⁾의 연구조사에서 음식이나 음식점 선택시 음식의 영양적인 면보다는 맛에 크게 치중한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신속한 식사제공의 선택 이유도 10.7%로 나타나 이들 운전자들에게 식사에 할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 선호하는 메뉴

조사대상자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Table 10에 나타내었다. 좋아하는 메뉴로서는 한정식보다 일품요리의 선호도가 시내, 시외영업자 공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바쁜 운전자들에게 신속히 제공되며 빠른 시간 내에 식사를 마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인스턴트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았는데 조사대상 운수종사자들의 주된 연령이 40대에서 50대이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스턴트 음식보다 한식요리류를 좋아한다는 남궁¹³⁾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식 일품요리의 선호도를 면종류

시외영업자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靑木¹⁴⁾에 의하면 식기호는 2가지 종류로서 한가지는 장기간 동안 바뀌지 않는 "식기호"에 해당하는 기호가 있고 또 한가지로서 때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맛"에 해당하는 기호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식기호는 모두 맛있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때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맛"에 해당하는 기호로 보여지며 본 연구대상자들이 장기간 일품요리를 선호하는데는 영양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식사에서 충족될 수 없는 영양소들이 균형있게 함유된 올바른 식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식생활을 개선해야 하며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요약 및 결론

대구지역 운수종사자들의 식행동과 음식기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대구 시내영업자와 시외영업자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운수종사자들의 영양교육과 급식업소 식단작성시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1. 일반적 사항으로서 조사대상자들은 모두 남성 근로자였으며 40대와 50대의 연령이 대부분이었고 학력은 중졸과 고졸이 각각 46.5%, 47.3%를 차지하였다. 월 평균 수입은 51~100만원이 49.0%로 가장 많았으며 시내영업자와 시외영업자의 비율은 44.2%, 55.8%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들의 식행동 특성으로서 식사를 하는 이유가 영양섭취면보다는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나 일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식사횟수와 식사시간의 규칙성으로는 시내영업자의 경우는 세끼 식사를 다하는 경우가 92.9%로 높았으나 시외영업자의 경우는 두끼 식사만 하는 경우도 21.3%나 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시간이 없다는 것과 식욕이 없다는 응답을 들었다. 식사시간은 시내, 시외영업자 모두에게서 불규칙하다는 응답이 78.2%로 높게 나타나 이들의 근무여건상 식사시간이 불규칙함

을 보여주었다.

3. 조사대상자들의 흡연은 비흡연자와 1일 1갑 미만 흡연자가 각각 38.8%, 57.8%로 나타나서 1일 1갑 이상 흡연자의 수는 많지 않았으며 커피는 하루 1잔이 44.8%로 가장 많았고 드림크류는 마시지 않는 경우와 하루 1병 섭취의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영양제나 보약은 복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4. 조사대상자들의 음식기호도에서 선호하는 식사 형태는 한식이 94.9%로서 대부분 한식을 선호하였으며 기피하는 음식이 있다는 응답은 시외영업자보다 시내영업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고 기피이유로는 특이한 냄새나 맛을 이유로 들었다.

매식빈도는 시외영업자의 경우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1일 1회의 경우가 61.9%, 1일 2회의 경우도 26.9%로 나타났다. 매식선택시 고려사항은 맛이 최우선 순위였으며 다음이 가격이었으나 영양을 고려한다는 경우는 14.7%였다.

5. 선호하는 메뉴로서는 한정식보다 한식 일품요리를 들었으며 그 중에서도 국수류보다는 밥이나 탕종류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밥종류로서는 회덮밥, 쇠고기덮밥이 높게 나타났으며 탕종류에서는 갈비탕과 삼계탕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운수종사자의 건강은 교통안전에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교육프로그램에서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올바른 영양교육이 필요하며 운수연수원이나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소에서는 기호와 영양과 근로여건을 고려한 급식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내영업자와 시외영업자간의 식생활 실태 차이를 반영한 급식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V. 참고문헌

1. 김정현, 이민준, 박미영, 문수재 : 한국 남성의 식생활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7(2): 181-198, 1997.